

한국갤럽 Gallup Report 2013/04/15

한국인의 경제체감지수 - Economic Sentiment Index - (2013년 3월 기준)

우리 국민들은 2013년 현재의 경기를 어떻게 느낄까요? 앞으로는 어떤 것이라고 전망할까요?
소비와 투자는 국민이 경기(景氣)를 어떻게 느끼는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즉, ‘마음’이 실질적으로
실물 경제에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경제 성장과 복지’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새 정부
경제 정책의 성패도 바로 국민의 경제 체감에 달려 있습니다.

한국갤럽은 과거 연 2회 경제지표 조사를 실시해 왔으나, 2013년 3월부터는 매월 단위로 확장해
한국인의 경제체감지수(Economic Sentiment Index)로 제공합니다.

한국인의 경제체감지수는 현재의 경기평가지수와 미래의 경기전망지수로 구성되며
경제 체감과 연관된 지역, 연령, 직업 등 인구사회적 변인과 함께
주관적 생활수준, 여윈돈지수, 경제정책 우선순위 등을 분석합니다.

조사 개요

1. 조사대상: 전국의 만 19세 이상 남녀
2. 표본크기: 1,218명
3. 조사방법: 휴대전화 RDD 조사
(한국갤럽 전화조사원이 무작위로 생성된 휴대전화 번호로 직접 전화를 걸어 인터뷰)
4. 조사기간: 2013년 3월 25~28일(4일간)
5. 표본추출: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
6. 표본오차: $\pm 2.8\%$ 포인트(95% 신뢰수준)
7. 응답률: 18%
8. 의뢰기관: 한국갤럽 자체조사

주요 결과

- ✓ 현재 우리나라 경제사정은?: ‘나쁜 편’ 79%, ‘좋은 편’ 4%
- 작년 7월 대비 ‘경제사정 나쁜 편’ 8%포인트 증가 -
- ✓ 주관적 생활수준은?: ‘하층’ 21% - 60세 이상 열 명 중 네 명 스스로 하층이라 생각 -
- ✓ 여윈돈이 생긴다면?: ‘빚부터 갚겠다’ 31%, ‘저축/투자를 하겠다’ 56%
- ✓ 우리 정부의 경제 정책 우선순위는?: ‘경제 성장’ 50% vs. ‘복지’ 39%
- 1년 전에 비해 경제 성장은 33%→50%로 증가, ‘복지’는 61%→39%로 감소 -
- ✓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상황은?: ‘좋아질 것’ 38%, ‘나빠질 것’ 17%
- 작년 7월 대비 ‘경제상황 좋아질 것’ 29%포인트 크게 늘어 -

현재 우리나라 경제사정은?: ‘나쁜 편’ 79%, ‘좋은 편’ 4%

- 작년 7월 대비 ‘경제사정 나쁜 편’ 8%포인트 증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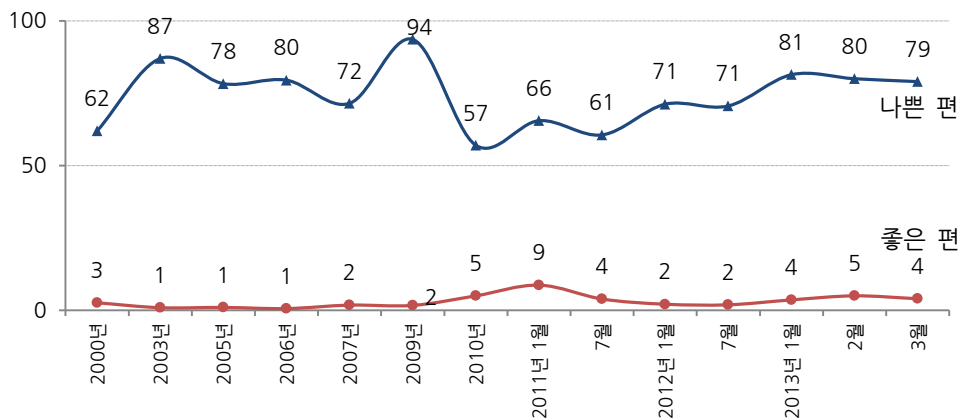
한국갤럽이 지난 3월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218명에게 요즘 우리나라의 경제 사정에 대해 물은 결과
‘좋은 편이다’ 4%, ‘나쁜 편이다’ 79%, ‘보통’ 15%, ‘모르겠다/응답거절’ 2%로
현재의 경기(景氣)에 대해서 부정적 평가가 많았고 긍정적 평가는 소수였다.

현재 경기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2009년 94%로 최악이었고 2010년 57%까지 완화됐다가 이후 악화하는 추세로 작년 7월에 비해 부정 평가가 8%포인트 많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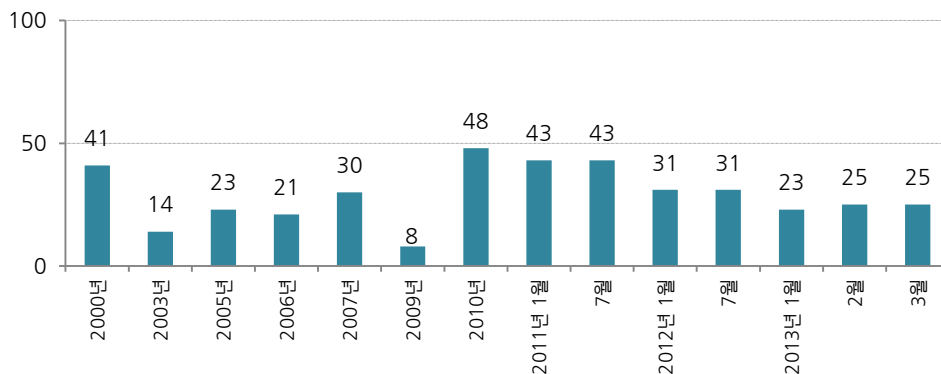
경기가 좋은 편에서 나쁜 편을 비율을 차감한 평가지수를 기준으로 볼 때

- 현재의 경기 평가가 낮은 지역은 광주/전라(19), 대전/충청/세종(20)이며
- 연령별로는 40/50대(20, 17),
- 직업별로는 자영업자(19), 가정주부(21)의 평가가 낮았다.

▶ 요즘 우리나라의 경제사정은? (단위: %)



- 평가지수(좋은 편-나쁜 편+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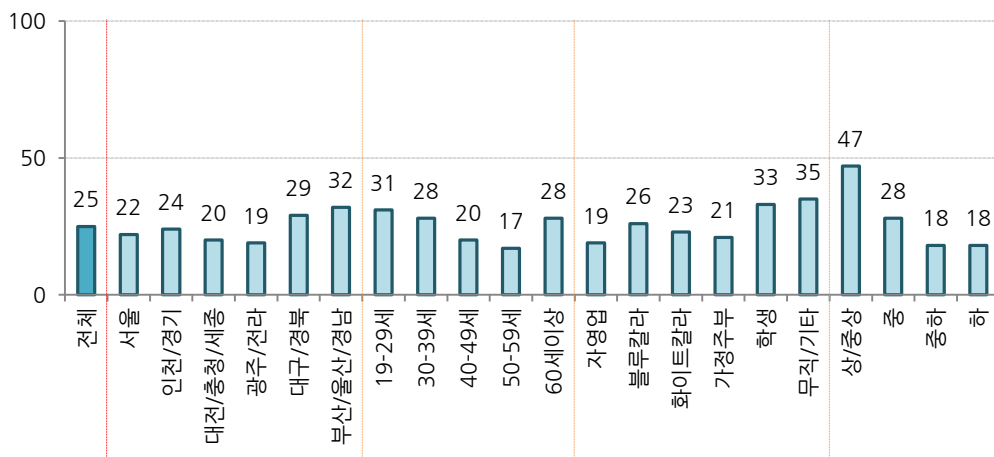


질문) 요즘 우리나라의 경제사정 즉 경기가 좋은 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쁜 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요즘 우리나라의 경제사정은? (2013년 3월, 단위: %)

구분		표본수 (명)	좋은 편	보통	나쁜 편	모름/ 응답거절	평가지수
전체		1,218	4	15	79	2	25
지역별	서울	252	4	12	82	2	22
	인천/경기	349	5	13	81	1	24
	강원	37	-	-	-	-	-
	대전/충청/세종	124	2	10	82	5	20
	광주/전라	125	2	13	83	2	19
	대구/경북	126	4	19	75	2	29
	부산/울산/경남	193	5	21	73	1	32
제주		13	-	-	-	-	-
성별	남성	603	5	16	77	2	28
	여성	615	3	13	82	2	21
연령별	19~29세	220	6	17	75	2	31
	30대	253	5	17	77	1	28
	40대	263	4	11	84	1	20
	50대	233	3	11	86	1	17
	60세 이상	249	3	18	75	4	28
직업별	농/임/어업	36	-	-	-	-	-
	자영업	177	2	14	83	1	19
	블루칼라	171	5	16	79	-	26
	화이트칼라	343	5	13	82	1	23
	가정주부	261	3	13	82	2	21
	학생	111	8	16	75	1	33
주관적 생활수준 별	무직/기타	119	4	19	69	8	35
	상/중상	111	13	21	66	-	47
	중	453	4	18	76	3	28
	중하	386	2	12	84	1	18
	하	255	3	10	85	2	18

- 응답자 특성별 평가지수(좋은 편-나쁜 편+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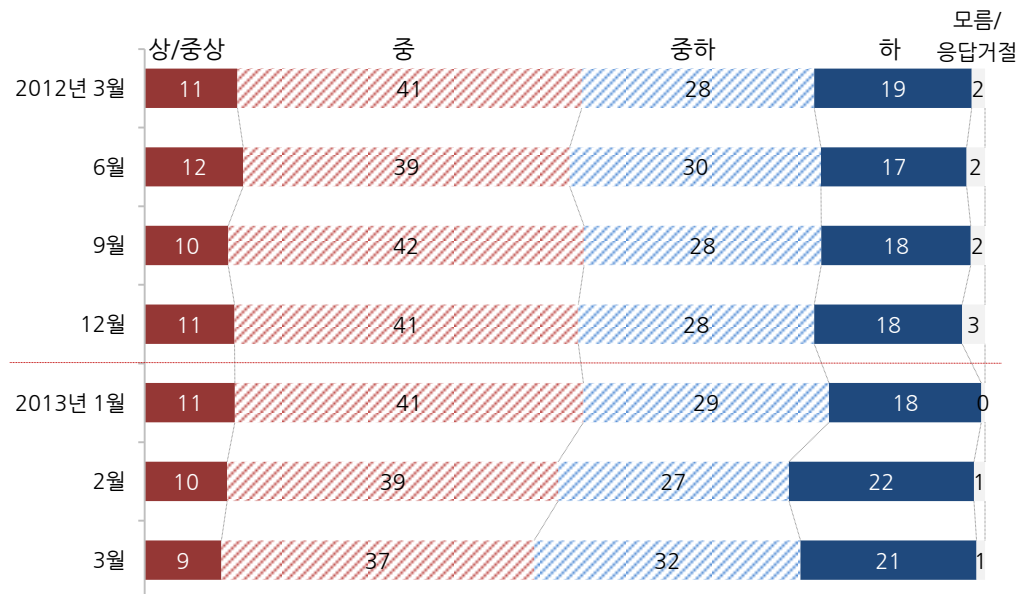
주) 50사례 미만은 수치를 제시하지 않음

주관적 생활수준은?: '상/중상층' 9%, '중층' 37%, '중하층' 32%, '하층' 21%
- 60 세 이상 열 명 중 네 명 스스로 하층이라고 생각해 -

주관적 생활수준을 묻은 결과 '상/중상층'이 9%, '중층' 37%, '중하층' 32%, '하층' 21%로 국민 절반은 자신의 생활수준을 하층 또는 중하층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열 명 중 두 명은 스스로를 하층이라고 생각했다. 작년에 비해 하층이나 중하층으로 자평하는 비율이 소폭 상승해 3월 조사에서 50%를 넘었다.

스스로 하층이라고 느끼는 사람은 지역별로는 광주/전라(30%)에서 가장 많았고 나이가 들수록 늘어 60 세 이상 열 명 중 네 명이 스스로 하층이라 생각했다. 직업별로 무직/기타(35%), 블루칼라(32%)에서 하층이라고 인식하는 사람이 많았다.

▶ 주관적 생활수준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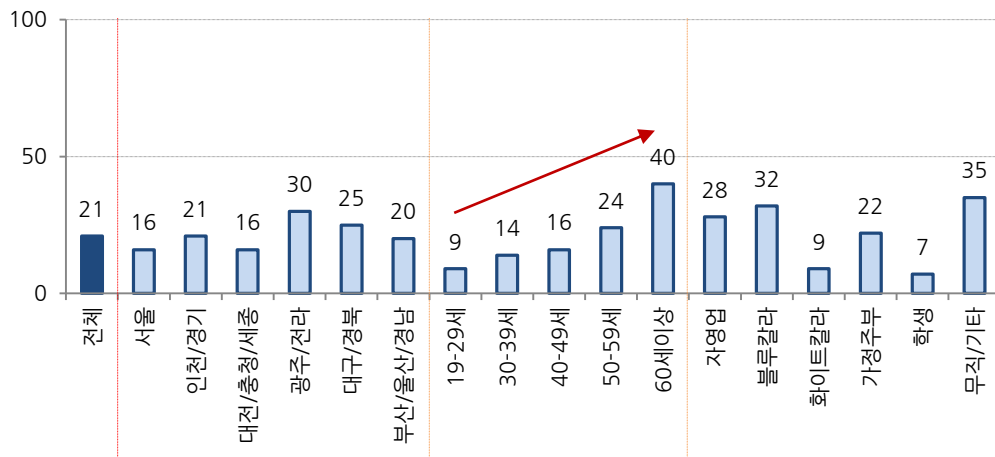


질문) 우리 국민들의 생활수준을 상, 중상, 중, 중하, 하의 다섯 단계로 나눈다면
 귀 닥의 생활수준은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주관적 생활수준 (2013년 3월, 단위: %)

구분		표본수 (명)	상/중상	중	중하	하	모름/ 응답거절	중하+하
전체		1,218	9	37	32	21	1	53
지역별	서울	252	12	39	33	16	1	49
	인천/경기	349	9	35	34	21	2	55
	강원	37	-	-	-	-	-	-
	대전/충청/세종	124	7	43	34	16	-	51
	광주/전라	125	9	36	24	30	1	54
	대구/경북	126	10	37	27	25	2	52
	부산/울산/경남	193	9	36	34	20	1	54
	제주	13	-	-	-	-	-	-
성별	남성	603	9	36	32	21	1	53
	여성	615	9	38	32	21	1	52
연령별	19~29세	220	13	43	33	9	1	43
	30대	253	10	41	35	14	0	48
	40대	263	11	36	37	16	1	53
	50대	233	8	38	27	24	2	52
	60세 이상	249	5	28	26	40	1	66
직업별	농/임/어업	36	-	-	-	-	-	-
	자영업	177	9	29	33	28	-	61
	블루칼라	171	7	26	34	32	1	66
	화이트칼라	343	11	43	36	9	1	45
	가정주부	261	7	41	29	22	1	51
	학생	111	18	44	29	7	3	36
	무직/기타	119	4	33	27	35	1	62

- 응답자 특성별 하층 비율 (단위: %)



주) 50사례 미만은 수치를 제시하지 않음

여윳돈이 생긴다면?: ‘빚부터 갚겠다’ 31%, ‘저축/투자를 하겠다’ 56%

만약 여윳돈이 생긴다면 어떻게 사용하겠는지 묻은 결과
 ‘빚부터 갚겠다’ 31%, ‘저축/투자를 하겠다’ 56%, ‘지출을 늘리겠다’ 10%로
 우리 국민 열 명 중 세 명은 여윳돈이 생기면 투자나 지출보다
 빚부터 청산할 생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빚부터 갚겠다는 응답은 연령별로는 40대(40%)에서 가장 많았으며
 주관적 생활수준이 낮을수록 늘었다.
 반면 저축/투자를 하겠다는 응답은 20/30대(69%, 61%),
 주관적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많았으며
 지출을 늘리겠다는 응답은 60세 이상(17%)에서 가장 많았다.

▶ 만약 여윳돈이 생긴다면? (2013년 3월, 단위: %)

구분		표본수 (명)	빚부터 갚겠다	저축/투자를 하겠다	지출을 늘리겠다	모름/ 응답거절
전체		1,218	31	56	10	3
성별	남성	603	29	55	12	3
	여성	615	33	57	7	3
연령별	19~29세	220	20	<u>69</u>	10	1
	30대	253	32	<u>61</u>	5	1
	40대	263	<u>40</u>	49	8	3
	50대	233	34	53	9	4
	60세 이상	249	29	48	<u>17</u>	6
주관적 생활수준 별	상/중상	111	20	<u>67</u>	12	1
	중	453	25	<u>64</u>	8	2
	중하	386	34	54	9	3
	하	255	<u>43</u>	39	13	5

질문) 만약 생각지도 않은 여윳돈이 생긴다면 다음 중 어느 것에 사용하시겠습니까?
 (빚부터 갚겠다, 저축/투자를 하겠다, 지출을 늘리겠다)

우리 정부의 경제 정책 우선순위는?: '경제 성장' 50% vs. '복지' 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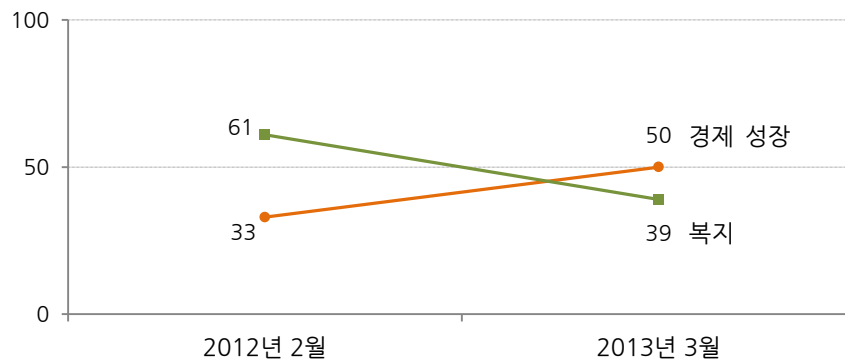
- 1년 전에 비해 경제 성장은 33%→50%로 증가, '복지'는 61%→39%로 감소 -

우리 정부의 경제 정책 우선순위를 묻은 결과 '경제 성장' 50%, '복지' 39%로 경제 성장을 우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 경제 성장 중시 의견이 작년 2월 33%에서 50%로 17%포인트로 크게 증가한 반면 복지 중시 의견은 61%에서 39%로 22%포인트 감소했다. 경제사정이 악화되면서 경제 성장에 대한 요구가 더 커졌다고 볼 수 있다.

경제 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의견은 연령별로 차이를 보여 40대 이상은 '경제 성장', 20/30대는 '복지'를 우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한편 생활수준별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복지 혜택의 필요성이 가장 큰 하층에서 '복지' 우선 응답이 가장 적었다. 고연령대가 많은 하층의 보수적 성향 때문인지 보편적 복지정책이 하층의 이해관계에 반(反)하기 때문인지는 심층적 분석이 필요하다.

▶ 우리 정부의 경제 정책 우선순위는? (단위: %)



- 우리 정부의 경제 정책 우선 순위 (2013년 3월, 단위: %)

구분		표본수(명)	경제 성장	복지	모름/응답거절
전체		1,218	50	39	11
성별	남성	603	52	39	10
	여성	615	49	39	12
연령별	19~29세	220	33	61	7
	30대	253	39	52	10
	40대	263	54	38	8
	50대	233	67	25	8
	60세 이상	249	58	21	21
주관적 생활수준별	상/중상	111	54	39	7
	중	453	50	41	9
	중하	386	50	41	9
	하	255	50	33	17

질문) 귀하께서는 정부의 경제 정책이 '경제 성장'과 '복지' 중 어느 것에 더 비중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상황은?: '좋아질 것' 38%, '나빠질 것' 17%

- 작년 7월 대비 '경제상황 좋아질 것' 29%포인트 늘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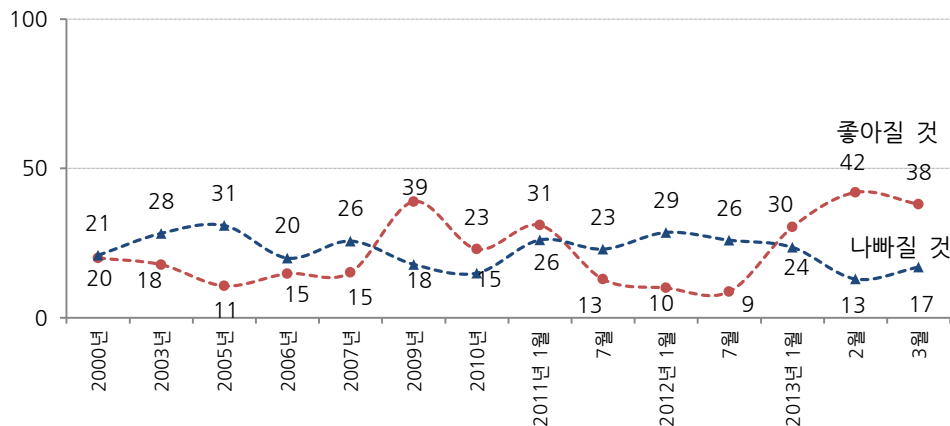
현재의 경제사정은 부정 평가가 많지만 '앞으로 경제상황이 좋아질 것'이라는 낙관 전망이 우세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을 묻은 결과 '좋아질 것' 38%, '나빠질 것' 17%, '비슷할 것' 38%, '모르겠다/응답거절' 8%로 경기 전망은 낙관이 비관의 두 배를 넘었다. 제작년(2011년) 이후 비관 전망이 많았으나 올 들어 낙관 전망이 크게 상승하는 추세다.

전망지수 기준으로 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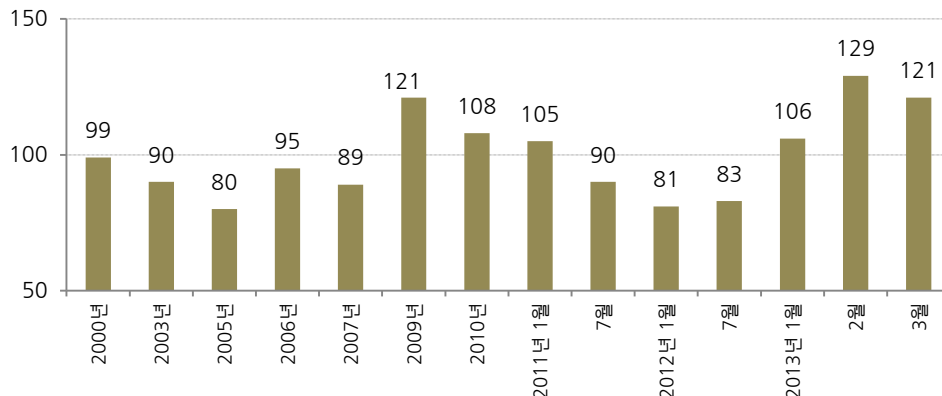
- 지역별로는 광주/전라(112)의 전망이 가장 낮았고
- 30/40 대(110, 111), 화이트칼라(107)의 전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엔고, 북한 도발 위협' 등 대내외적 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새 정부의 출범으로 변화와 경제 회생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 앞으로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은? (단위: %)



- 전망지수(좋아질 것-나빠질 것+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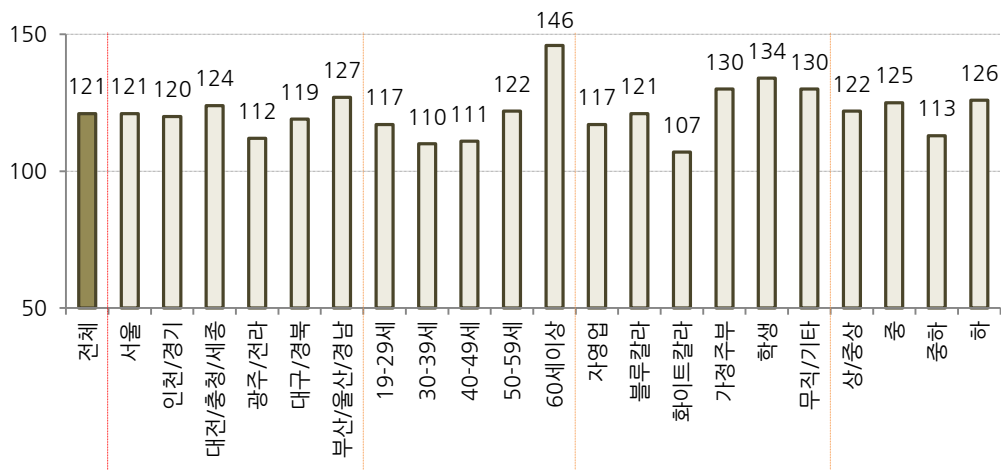


질문) 앞으로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은 지금보다 더 좋아질 것이라고 보십니까, 나빠질 것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비슷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 앞으로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을 전망하면? (2013년 3월, 단위: %)

구분		표본수 (명)	좋아질 것	비슷할 것	나빠질 것	모름/ 응답거절	전망지수
전체		1,218	38	38	17	8	121
지역별	서울	252	39	39	18	5	121
	인천/경기	349	37	38	17	7	120
	강원	37	-	-	-	-	-
	대전/충청/세종	124	40	38	16	6	124
	광주/전라	125	32	35	20	13	112
	대구/경북	126	34	41	15	11	119
	부산/울산/경남	193	41	37	14	9	127
	제주	13	-	-	-	-	-
성별	남성	603	41	36	16	7	125
	여성	615	35	39	17	9	118
연령별	19~29세	220	34	46	17	3	117
	30대	253	29	47	19	6	110
	40대	263	31	41	20	8	111
	50대	233	39	36	17	8	122
	60세 이상	249	56	19	10	15	146
직업별	농/임/어업	36	-	-	-	-	-
	자영업	177	36	35	19	11	117
	블루칼라	171	34	43	13	10	121
	화이트칼라	343	30	44	23	3	107
	가정주부	261	41	35	11	12	130
	학생	111	47	39	13	1	134
	무직/기타	119	48	24	18	10	130
주관적 생활수준 별	상/중상	111	35	47	13	5	122
	중	453	39	40	14	7	125
	중하	386	33	40	20	6	113
	하	255	43	26	17	14	126

- 응답자 특성별 전망지수(좋아질 것-나빠질 것+100, 2013년 3월)



주) 50사례 미만은 수치를 제시하지 않음